



강진 김영일



곡석 김광휘



구세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함평나비축제, '경제축제' 자리잡아

7년 연속 농·특산품 판매액 10억 돌파 곳은 날씨 등 악재 속 입장객 27만여 명



아한 날갯짓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유채꽃, 무꽃, 꽃양귀비 등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발한 드넓은 함평천 생태공원과 엑스포 공원에는 아름다운 꽃향기에 취해 봄을 만끽하는 관광객들의 탄성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화려한 색들로 무장한 꽃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직접 보고 만지면서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나비·곤충생태관은 축제 기간 내내 봄비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3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평일1회, 휴일2회씩 어린이 동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 야외 나비날리기

램이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함평천지문 화유물 전시관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우리 어머니들의 일생'을 테마로 한 각종 생활유물과 모형을 전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부모에게는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했다.

안 군수는 "나비축제가 7년 연속 농·특산품 판매 수익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음으로 양으로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 500여 공직자, 3만5천여 군민 덕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 내년 나비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여운이 남아있는 엑스포공원을 오는 31일까지 축제 때보다 저렴한 성인 500원, 청소년·군인 350원, 어린이·만6세 이상 250원, 유치원생 150원의 입장료로 유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성군, 내달말 '해수녹차센터' 준공

해수와 녹차 이용한 힐링과 휴양공간으로 조성

보성군에서는 해수와 녹차를 이용해 힐링과 휴양이 가능한 해수녹차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다.

총 170여 원을 투입해 2016년 12월 착공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422㎡로 현재 운영중인 해수녹차탕의 2배 이상 규모로 내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

▲1층은 뷰테라피, 특산품판매장 ▲2층은 5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남2녀 해수녹차탕 ▲3층은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아쿠아토너, 아외 노천탕이 조성되고 있다.

1층에 조성될 뷰테라피와 특산품판매장 위탁운영을 위한 입점자는 이달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물 내·외부 마감공

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대비 8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6월말 준공전에 시설물 예비가동을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해수녹차탕은 9월에 철거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남남의 광장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해수녹차센터는 단순 세션 목욕문화에서 탈피해 건강과 치유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및 유희종합휴양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지난달 27일 개막해 11일간의 대장정을 펼친 제20회 함평나비축제가 경제축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상년을 맞이한 제20회 함평나비축제가 7일 밤 6시 축제현장 주무대에서 열린 폐막식 행사와 불꽃놀이를 끝으로 11일 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나비축제는 황금연휴기간(5월6~7일)에 많은 비가 내리고 타 지역 축제와 행사 기간이 겹치는 등 많은 악재에도 총 입장객수 27만여 명을 달성했다.

군민이 참여한 축제장내 농·특산품 및 각종 판매장 판매액은 10억 4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 13회 축제부터 7년 연속(16회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함평나비축제는 군민소득 향상과 군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돈 먹는 축제'가 아닌 '돈 버는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나비축제는 24종 20만 마리의 나비가 우

영광군 '사계절이 사는 집'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2년 연속 선정 영예

영광군은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계절이 사는 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시중 판매 매장에서 2회에 걸쳐 시료를 구입,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

건환경연구원 등 6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식미평가, 품종혼합율, 외관상 품위, 중금속오염도 및 잔류농약 검사와 서류·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0대 브랜드쌀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대상 중 상위 주요 브랜드쌀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매년 안정적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전년도 신규 선발된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이 품위평가 등 각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 대비 한단계 상승 진입하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문도정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벼 건조·저장시

설 설치 지원 등 영평쌀에 대한 한국 명품쌀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판매확대로 영광 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는 오는 6월 1일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된 브랜드쌀에는 1~3천만원의 시상금과 '2018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드론 자격증반' 운영 20명 합격

공동방재에 바로 활용



장성군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한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에서 20명의 교육생이 드론(조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드론은 농업분야에서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장성군은 농업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농

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증반을 운영해 왔다.

교육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됐다.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농한기인 2~3월에 운영했으며,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법 등 이론은 물론이고 실제 비행 훈련을 해보며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이 합격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 평균 300만원 가량의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의 50%를 군비

로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진용우(장성읍)씨는 "농로가 좁아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논밭의 농작물이나 병해충 방제를 부탁하는 연이 많아 이번엔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들과 함께 드론으로 벼 방제작업을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자격증 취득으로 영농의 또 다른 수임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구례군, 전국지자체연구조합 워크숍

구례야생화연구소 성과 발표 및 한국입학박물관 견학 등

구례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구례야생화연구소(소장 박노진)에서 전국 지자체단체 연구조합 연구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연구조합협의회 상반기 워크숍이 열렸다고 전했다.

전국지자체연구조합협의회와 구례야생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연구원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업무 교류 및 의견 교환, 지역 간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였다. '조직의 발전, 소통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구례야생화연구소 성과 발표 및 야생화 산업의 성공모델인 한국입학박물관 견학과 입학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지자체연구조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4년부터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18개의 지자체 연구소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추진한 구례야생화연구소는 2008년 개소하여 야생화 생태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야생화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효능 연구와 기업 기술 애로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공기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입학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최초로 입학박물관을 개관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